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18 November 2005 (afternoon)
Vendredi 18 novembre 2005 (après-midi)
Viernes 18 de noviembre de 2005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a) 고풍의상(古風衣裳)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附椽) 끝 풍경이운다
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 밤이 두견(杜鵑)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곱아라 고와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5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주빛 호장을 받친 회장저고리
회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고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10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치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마리 호접(胡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15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고 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지어다.

(조지훈 [문장] 3 호에서)

1(b) 은전 한냥

내가 상해에서 본 일이다.

늙은 거지 하나가 전장(錢莊)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일 원짜리 은전 한 냇을 내놓으면서,
"황송하지만 이 돈이 못 쓰는 것이나 아닌지 좀 보아 주십시오."

5 하고 그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과 같이 전장 사람의 입을 쳐다본다. 전장 주인은 거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돈을 두들겨 보고 '중소'하고 내어 준다. 그는 '중소'라는 말에 기쁜 얼굴로
돈을 받아서 가슴 깊이 집어 넣고 절을 몇 번이나 하며 간다. 그는 뒤를 자꾸 돌아다 보며 얼마를
가더니, 또 다른 전장을 찾아 들어갔다. 품 속에 손을 넣고 한참을 꾸물거리다가 그 은전을 내어
놓으며,

10 "이것이 정말 은으로 만든 돈이오니까?" 하고 묻는다. 전장 주인도 호기심 있는 눈으로
바라다보더니,
"이 돈을 어디서 훔쳤어?" 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주웠다는 말이나?"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빠뜨립니까? 떨어지면 소리는 안 나나요? 어서 도로 주십시오."

15 거지는 손을 내밀었다. 전장 사람은 웃으면서 '중소'하고 던져 주었다.

그는 얼른 집어서 가슴에 품고 황망히 달아난다. 뒤를 흘끔 흘끔 돌아다보며 얼마를 허덕이며
달아나더니 별안간 우뚝 선다. 서서 그 은전이 빠지지나 않았나 만져보는 것이다. 거치른 손바닥이
누더기 위로 그 돈을 짚 때 그는 다시 웃는다. 그리고 또 얼마를 걸어가다가 어떤 골목 으스스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더니, 벽돌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돈을 손바닥에 들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20 그는 얼마나 열중해 있었는지 내가 가까이 간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 줍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는 내 말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뺏아가지 않소."

25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일 원짜리를
줍니까? 각전(角錢) 한 냇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냇 주시는 분도 백에 한 분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으로 몇 냇씩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마흔 여덟 냇을 각전
냇과 바꾸었습니다. 이러기를 여섯 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대양(大洋) 한 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0 이 돈을 얻느라고 여섯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던 말이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35 "이 돈, 한 개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피천득,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